

머스크, '스페이스X' IPO 승부수...직원·지인에 공모주 5% 배정

등록 2026.06.02 14:33:59 | 수정 2026.06.02 15:12:26



[케이프커내버럴=AP/뉴시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5%를 임직원과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5%를 '지정 주식 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사진은 2018년 2월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 2026.06.02.

[서울=뉴시스] 신호영 기자 =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 업체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5%를 임직원과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상장 직후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5%를 '지정 주식 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가 지정한 임직원이나 경영진의 가족, 지인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보호예수(Lock-up) 규정의 면제다. 통상 상장 직후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매각 제한 조치가 이들 내부 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상장 첫날부터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즉각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 스페이스X가 구체적인

면제 물량 규모를 5%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지분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상장 전 발행 주식의 60% 이상이 장기 보호예수 대상이며,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 역시 최종 투자설명서 제출일로부터 366일(1년) 동안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필라델피아=AP/뉴스시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5%를 임직원과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5%를 '지정 주식 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사진은 머스크가 2025년 3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레슬링 챔피언십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2026.06.02.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스페이스X가 오는 11일 공모가를 산정하고, 12일 나스닥에 상장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이 추산하는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가치는 최소 1조80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로,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을 기점으로 엔트로픽, 오픈AI 등 자금 조달을 노리는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우주 기술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